

□ 2018년도 국제예술교류사업 정시공모(1차) 분야별 심의 총평

문학분야

- 회의일시 : 2018년 2월 20일(화) 오전 10시~오후 12시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실2
- 심의위원(가나다 순) : 고재중, 노경실, 박수연, 방현석, 이홍섭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세계문학의 한국화가 함께 고민되는 시기이다. 이를 위해 한국문학인들이 국제적 문화 수준을 체험하고 한국의 문학을 해외로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문학은 체험을 언어로 표현하고, 낯선 언어를 삶의 내용으로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언어적 자의식 이외에도, 그 언어가 위치하는 현실을 작가들은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한다.

문학의 국제교류가 필요한 것은 그 자의식과 검토가 여러 경험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험의 총화가 문학의 언어라면, 그 경험을 일구어주는 여러 방책에 작용할 국가의 지원이야말로 한 나라 전체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할 잣대이다.

이번 지원심의 대상사업은 총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이었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이 유형에는 모두 17개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지원자 대부분 문학적 이력이 풍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의 역사적 현실과 세계사적 현실의 공통점을 탐구해보려는 창작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위안부, 분단, 파시즘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원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자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원심의 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기여도와 파급효과였고, 심의원들의 개별 점수를 채점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득점자 순으로 지원자들의 순위를 정하였다. 결과는 발표와 같다. 다만, 이번 레지던스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자가 없는 영역이 많았던 관계로 2차 공모에서 많은 응모를 기대한다.

<국제예술교류지원>

이 유형에는 5개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지원심의 기준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타당성, 기획프로그램의 독창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업의 목적이 뚜렷하지만, 그것의 충실성, 기여도와 파급효과에서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업도 있었다. 교류조건 또한 상호 호혜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사업이 많았으며 재정 계획 또한 대부분을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업을 위한 경비만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이 유형에는 2개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사업은 2019년 또는 2020년에 확정된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개의 사업 모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심의위원들은 판단하였다. 자격요건이 미비한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일은 엄중한 일이다. 모두 지원하고 싶어도 그 엄중함이 앞을 막는다. 지원자들의 이해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

시각예술분야

- 일시 : 2018년 2월 22일(목)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실2
- 심의위원(가나다 순) : 박이창식, 안미희, 안소연, 정종효

2018년 시각예술분야 국제정기공모 제1차 지원심의에는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국제교류리서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의 6개 유형 198개 신청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심의에 앞서 심의대상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팩트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거친 뒤 각 사업별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각 사업별 목적 및 특성, 주요 파급효과 등 심의기준에 입각하여 개별 채점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자율형 사업은 예술가의 국제적 역량 강화 및 해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술가 개인이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에 개별적 컨택하여 참여가 확정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36건의 신청사업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지원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레지던시 참여와 관련한 사업기간이 명확한가, 대상기관의 신뢰성은 문제가 없는가, 제출 자료의 증빙서류가 빠짐없이 구비되었는가, 신청서상에 미기재부분이 없는가, 사업과 관련된 중복지원이 없는가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 심의하였다. 아울러 지원항목으로 공지된 항목을 기준으로 현실적 비용과 예술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조정 지급함을 원칙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총 36건 중 20건을 선정하고 총 79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기획형 사업은 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획·발굴한 우수한 해외 창작거점기관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한국예술가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번 심의에 해당하는 6개 레지던스에 총 64건의 지원신청건을 심의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가능성,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에 따라 심의하였다. 신청서가 충실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 사업은 현지 주관처에서 최종참가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청인의 역량과 해당 레지던시 참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7명, 프로젝트에이스피탈 1명, 영국 가스웍스 6명, 핀란드 HIAP 3명, 영국 테이트 모던 인텐시브 프로그램 3명의 후보자를 선발하였으며, 아라운호 승선 레지던시 최

중 참가자를 확정하였다. 아라온호 승선 레지던시를 제외한 나머지 레지던시 후보자는 이후 현지 주관처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참가자를 확정하게 될 예정이다. 예술위에서 기획·발굴하여 진행하는 본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예술가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사업은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Artist in residence) 개최를 지원하여 예술가의 쌍방향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4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기여도와 파급효과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였다. 총 1건을 선정하고 23백만 원을 배정하였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차원에서 매우 기대되는 지원사업이지만 작년에 이어 지원신청 건수가 많지 않았고 차별화된 내용이 부족하여 아쉬운 분야이다.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신청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요구된다.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차원의 국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가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남북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 82건이 접수되어 타 분야에 비해 시각예술분야에서의 국제교류 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기획프로그램의 독창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 사업내용과 이에 따른 신청내역의 적정성, 동일인물의 중복사업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일방적인 성격의 국제교류사업 보다는 상호호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을 우수하게 평가하였다. 신청내역상 중복되는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과다신청 내용을 점검하여 총 24건 선정, 366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사업은 2019년 또는 2020년의 확정된 사업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중장기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총 4건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에 따라 심의하였다. 그러나 2019년, 2020년 추진예정사업에 대해 그 사업내용이 확정되었는가를 근거자료를 통해 심의한 결과 4건 모두 그 사업내용의 기간과 주최에 대한 불명확한 점이 있어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자없음'으로 결정하였다. 본 사업은 중장기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단계적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만큼, 이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강화 등의 유도전략이 요구된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사업은 2019년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 기념으로 양국의 문화 예술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8건이 접수되었으며 신청인의 프로그램 참여 적격성, 성공적인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에 따라 심의를 진행했다, 공동(협업)프로젝트를 전제로 하는 덴마크 예술단체(예술가)와의 교류가 한국 또는 덴마크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증빙이 구비되었는가, 실현가능성이 충분한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건을 선정하였으며 30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심의회 위원 일동

연극분야

- 일시 : 2018년 2월 20일(화) 오후 1시~오후 6시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2실
- 심의위원(가나다 순) : 구민주, 기국서, 김숙중, 이윤정, 최영갑

1. 심의 총평

국제예술교류 연극분야 지원심의회는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자율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ARKO-PAMS(일반공모)>, <ARKO-PAMS협력지원(프로모션키트)> 총 8개 유형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1차 공모를 통해 총 63건, 1,430백만원의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심의위원 5인은 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국제적 파급 효과 등 사업별 지원심의회기준을 적용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 1) 한정적인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단체와 예술가들에게 고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외대상과 지원가능 항목들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 2) 국제교류 사업인만큼, 협력기관의 초청장과 교류조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국제교류지원의 특성상 해외 공연 경험이 더 많을수록 단단한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단체나 예술가에게 편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심의 내내 거론됐다. 따라서 동일조건인 경우 지원받지 못한 단체나 예술가에게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다수의 심의위원이 공감했다. 하지만 신청단체의 예술성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 또한 중요한 심의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더 많은 단체와 예술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되 너무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지원 분야별 지원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지원신청 사업들이 타당성과 예술성에서 충분하였기에 협력기관의 교류조건이나 사업의 세부계획에서의 작은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다. 때론 단체나 예술가가 지원분야를 착각하거나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떨어진 경우도 있어 심의위원들을 안타깝게 했다.

2. 세부 심의평

<국제예술교류지원>

총 35건의 신청 건수가 접수됐고 충실성, 타당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면에서도 타 분야보다 월등하여 경쟁률이 높은 사업이었다. 지원심의회기준과 더불어 지원신청단체의 역량과 현지 파트너의 교류조건 등 단순초정보다는 상호호혜적인 사업들을 우선

선정하였다. 대부분 해외 초청공연의 신청이 주를 이루어 국제협업작업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최대한 많은 단체와 예술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한편, 적절한 예산 배정으로 향후 지원금이 적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리서치에 대한 세부계획이 모호한 단체는 제외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7개의 신청사업 중 4개를 선정하였다. 배정된 예산이 매우 한정적이라 리서치를 위한 항공료와 숙박의 일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였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한국-덴마크 리서치 지원)>

2019년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 기념을 위해 “한국-덴마크 문화예술의 해”를 추진하기로 협의가 이뤄져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2018년 사전리서치 단계지원과 2019년 한국 혹은 덴마크의 공연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아동극의 제작과 공연이 활발한 덴마크 극단과 한국 극단의 협업 계획들이 대부분으로 그 중에서 사업의 차별성과 참신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 기관보다는 민간단체 및 예술가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세밀한 검토 끝에 2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단체들의 리서치 후 2019년 향후 협업공연으로 이어져 양 국가 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기대해본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예술인의 해외창작 레지던스(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레지던스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및 신청자의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지원신청사업 대부분이 고려사항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단체와 예술가를 지원하되 제시된 지원 항목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히 예산을 배분하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획, 발굴한 우수한 해외 창작거점 기관에 예술가를 파견해 예술가의 창작역량과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취지에 맞춰 심의위원들은 참가지원자의 지원서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였다. 또한 기회를 고루 주기위해 기존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던 지원이력도 고려하여 편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심의위원 5인은 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3인의 후보군을 선정하였고, 현지주관처인 예지그로토프스키-토마스위크센터에서 최종 참가자 1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사업목적은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개최를 지원하여 예술가들 간의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선정된 단체는 작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였고, 좋은 결과물을 선보였다. 다만 예산이 과하게 신청된 항목들이 있어 적절하게 예산을 조정하였다.

<ARKO-PAMS협력지원(일반공모)>

서울아트마켓 팜스초이스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초청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지원심의회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신청작품의 해외초청의 적합성, 해외초청기관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였는데 대부분의 신청단체가 명망 있는 해외기관에 좋은 조건으로 초청이 되었고, 예산 또한 적절히 신청하였으나 홍보비가 과하게 신청한 단체도 있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ARKO-PAMS협력지원(프로모션키트)>

국내 공연단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홍보책자 및 영상물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다. 1개 단체가 신청하여 선정되었다. 취지가 좋은 사업인만큼 본 사업에 대한 예술단체들의 많은 지원신청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의회원 일동

무용분야

- 일시 : 2018년 2월 21일(수) 11:00~16: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강경모, 김서령, 이해경, 최해리, 홍성욱

국제예술교류 무용분야는 총 7개 유형의 사업을 심의하였다. 이번 공모는 총 80건(1,668백만원)이 접수되었으며,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확정하였다.

심의에 앞서 위원들은 사업 담당자들과 각 사업별 목적과 추진방침 및 추진계획안을 재확인하였으며, 사업별로 심의하면서 지원신청 공고 시에 제시된 세부심의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다. 판단과 선정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지원자(단체)와 교류대상에 대해 정보 공유와 토론도 병행하였다. 또한 국제교류특성을 반영하여 초청서 및 초청승낙서와 해외초청공연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무용계 파급효과와 국내 환류 가능성도 세밀히 검토하였다. 각 사업별로 심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예술교류지원>

이 지원사업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무용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국내 무용인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며,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53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며, 남북 무용교류 활동에 대한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국제 무용교류 지원에 대한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에 따른 중점 선정 기준을 세웠다. 첫째, 최근의 국제교류지원은 공동협업에 방점을 두고 있으므로 해외 무용가(단체) 및 기관과 공동 제작하여 이를 해외에서 발표하는 사업이 우선으로 고려 대상이 되었다. 또한, 제작비용을 감안하여 국내의 초청사업보다는 예산 배정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였다. 둘째, 국내 우수 레퍼토리 작품들의 해외 진출을 고려하였다.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은 주최기관의 국제적 영향력 및 인지도와 함께 상호호혜적인 교류를 판단의 중요 변수로 삼았다. 우수한 작품을 보유한 단체이지만 초청조건이 불합리하거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프레젠테이션 공연은 예산 배정액을 낮추거나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셋째, 국내에서 개최하는 초청공연이나 페스티벌에서도 공동협업과 상호호혜성의 원칙을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조건과 기준에 의거하여 총 53건의 지원신청 중 19건을 선정하였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이 지원사업은 2019년 또는 2020년에 확정된 국제교류프로젝트에 대해 중장기적 접근과 기획으로 프로젝트를 보다 충실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신청사업의 목표와 비전, 기획에서부터 향후 파급효과에 이르기까지의 사업 설계,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와 실천 가능성, 해외파트너의 국제적

영향력을 중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총 2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며, 2건 모두 심의기준에 미흡하여 선정되지 못하였다.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이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설 단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장, 국제예술가들과의 교류와 성과 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총 1건의 신청사업이 있었으나 다음의 이유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획 공모 프로그램이므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수준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주요 관건이었다. 신청기관은 비교적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지만, 특화된 중장기 비전과 전략,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국내외 무용가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참가자 선정의 투명성, 다양한 무용계 파트너십 운용, 향후 성과창출 등의 측면을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이 지원사업은 해외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국내 무용인들이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무용가들이 직접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주최기관의 초청서 내용과 신청자의 사업 내용을 교차 검토하면서 성과공유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가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무용계 전체에 환류 되는지의 여부, 인적 네트워크의 공유 가능성, 국내외 무용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선정 변수로 삼았다. 여기에 총 11건의 지원신청 중 4건이 선정되었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한국-덴마크 리서치 지원)>

이 지원사업은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국-덴마크 문화예술의 해”를 추진하는 일환에서 한국-덴마크의 예술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총 7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며, 이번 지원은 사전 리서치 단계에 대한 것이므로 2019년에 한국 또는 덴마크에서의 공연이 전제된 사업, 덴마크 파트너의 공신력, 사업 전개에 대한 충실한 로드맵, 현지조사를 포함 2018년에 수행할 리서치 계획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되지 못한 지원신청의 경우 전체 사업의 로드맵이 불충분했거나 현지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없는 측면과 나머지 1건은 사업성과의 무용계 환류 및 파급효과 측면이 미약하였다.

<ARKO-PAMS협력지원(일반공모)>

이 지원사업은 서울아트마켓(PAMS)의 팸스초이스(PAMS Choice)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 초청 공연을 지원하여 국내 무용공연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총 5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며, 4건이 선정되고 1건은 공연자 측에서 거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공연장이 작품의 예술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선정되지 못하였다.

<ARKO-PAMS협력지원(프로모션키트)>

이 지원사업은 서울아트마켓(PAMS)의 팸스초이스(PAMS Choice)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 프로모션을 위해 작품과 단체에 최적화된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 여기에는 총 1건의 지원신청이 있었으며, 두드러지는 결격 사유가 없었으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책자에 대한 편집 기획, 영상에 대한 시놉시스 또는 스토리보드에 관한 기술 및 계획의 구체성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심의위원 일동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18년 2월 23일(금) 10시 30분~오후 4시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실2
- 심의위원(가나다 순) : 강순미, 김창재, 노승림, 최승한, 최원선

2018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정기공모(1차) <음악분야>에는 6개의 카테고리 하에, 총 66건의 사업이 공모되었다. 심의는 크게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그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사업수행의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국제교류 예산의 80%가 1차 공모에서 배정되었다.

먼저, 이번 심의과정에 대해 서술하면, 심의는 6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전체적인 토론이 진행된 후, 심의 항목에 대한 심의위원 5명의 개별평가 점수를 합산해 그 총점에 따라 순위가 정해졌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심의 대상을 한정 한 후, 지원액 결정 및 예산액의 재배정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이 사업에는 심의기준에 의거 지원심의를 진행하였다. 2명이 지원하여 2명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이 사업이 지원자의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이 사업에는 9명의 지원자 중, 2순위까지 2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스웨덴 전자음악스튜디오에 2명을 파견하는 건인데, 각 지원자의 이력과 경력은 순수 전자음악 작곡가에서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국제예술교류지원>

총 51건이 접수되었는데, 사업 계획의 충실성·타당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그리고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심의기준으로 심의위원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 14건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었으며 이후, 지원서 상의 예산안 검토에 따라 예산액이 차등 배정되었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이 사업에는 총 1건이 공모되었으나, “대상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이 지원 사업의 경우, 국제예술교류지원에 이미 동일한 성격의 지원 건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신청사업이 중기적인 계획과 접근을 필요로 하는지, 사업 내용이 적절한지, 얼마나 국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쉬운 점이 있어 선정되지 못하였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한국-덴마크 리서치 지원)>

이 사업에는 2건이 공모되었으나, “대상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이 카테고리는 한국-덴마크 리서치 지원으로 2019년 덴마크와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음악분야에서는 이미 그 신청사업의 성격을 ‘재즈’와 ‘월드뮤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신청한 사업은 모두 그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었다.

<ARKO-PAMS협력지원(프로모션키트)>

이 사업에는 1건이 공모되었으나, 역시 “대상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업은 팸스초이스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 초청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위한 키트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신청사업 계획의 구체성이나, 키트의 활용계획 및 완성 키트의 파급효과나 향후 초청확대로 이어질 파급효과의 측면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5명의 심의위원들은 “국제교류”라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 및 세부 조건들과 항목들을 기준으로 66건의 음악분야 신청사업 건들을 공정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되짚어 보고자 투명한 검토의 과정들을 거쳤다.

이번 공모에 지원한 개인 및 단체는 몇 가지 점들에 있어서 재고해보아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카테고리별 사업의 성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즉, 기본적으로, 공모에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사업의 성격이 공모의 지원대상과 지원목적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지원자들은 사업 공모의 취지와 의도,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등 기본적인 조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 제안서를 꾸며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구체성에 관한 것이다. 지원서가 구체적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성공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러므로 지원자들은 자신들의 정보와 수행 사업에 대해 정확하고 세세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사업의 추진 정도를 증빙할 초청장, 계약서 등이 첨부된 경우, 그 실제 내용이 증빙서류로서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예산액의 적절성에 관한 것이다. 공모기금에는 지원이 가능한 정해진 항목과 책정된 금액이 있다. 지원자들은 이에 맞춰, 현실적이며 다수가 수공할 수 있는 예산안을 꾸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적으로 지원기금에 의존한 사업의 경우, 자칫하면, 이 사업에 기금이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비춰진다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사업의 성공적 완수의 측면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실현을 위한 재정확보와 자구책 마련에도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의 목적의식에 대한 부분이다. 이 기금의 신청이 단지 개인 혹은 단체의 국제적인 캐리어를 쌓기 위함인지, 대의에 따라 국가의 예술정책을 신뢰하고 문화예술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명감으로부터 기획된 것인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지원자들에게 던져본다. 국가의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 지원은 그 사업성과에 맞춰 점차 눈높이를 맞춰갈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심의도 지원자들로 하여금 추후 신청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며 과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획안으로, 또 사업의 목표를 향한 지원자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안서로 꾸며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음악인들이 음악으로서 훌륭한 국제교류의 역할을 담당해내길 기대하는 바이다.

심의위원 일동

전통분야

- 일시 : 2018년 2월 19일(월) 오후 2시~오후 6시
- 장소 : 대학로 메이플레이스 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진이, 김수미, 김원민, 김희선, 이애현

국제예술교류 전통분야는 총 6개 유형의 사업을 심의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총 71건(1,776백만원)이 접수되었으며, 5인의 심의위원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종 16건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확정하였다.

심의에서는 각 사업의 심의 기준과 더불어 지원자의 예술 역량, 교류 국가의 지역 및 기관의 신뢰도, 교류 조건 등을 고려하였으며, 일방이 아닌 쌍방향 교류를 지향하고 있는지, 차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이번 지원이 선정된 예술인 모두에게 국제적인 예술 활동을 펼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그 성과가 중장기적 발전으로 환류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차후 지원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각 사업에 대한 목적, 내용, 지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숙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독창적 콘텐츠를 돋보일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해 주길 당부한다.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서는 총 49개 사업이 지원 신청하였고, 심의 기준인 사업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국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중 9건을 선정하였다. 해외 진출의 적극성 및 세부 장르와 지원자의 지역 그리고 교류 국가의 지역도 중요하게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전반적으로 콘텐츠의 내용, 사업 계획의 구체성, 예산 등의 현실적인 전개 면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였으며, 해외한국문화원 등의 협력 및 교민 대상의 의례적인 프로그램들은 타기관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본사업의 지원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양하였다. 초청사업과 공동협업의 구분을 혼동하여 지원한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국제교류사업의 목적과 변화하는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취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더욱 보강해 주길 바란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에는 1건이 신청되었으나 안타깝게도 ‘2019년 또는 2020년 확정된 사업에 대한 준비 사업’이라는 신청 대상 자격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수년간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실질적인 결과 도출과 환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에는 1개 사업이 신청하였고, 본 사업의 목적과 방침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선정을 결정하였다.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노력을 다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예술가들의 쌍방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획력과 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며 유의미한 성과가 지속되길 바란다.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은 4개 신청 사업 중 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장기 체류 연구원 성격의 사업보다는 정확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우선 순위에 두었고 상대 기관의 특성과 신뢰도까지 함께 살폈다. 참여자의 노력과 태도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업으로 각자 책임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경험을 쌓고, 도약의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 참여가 저조한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참여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예술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해외 창작 플랫폼을 개발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사업 공모에는 4개 플랫폼에 15개 사업이 신청하였으며, 논의 끝에 3개 단체만을 선정하였다.

4개팀이 지원한 몽골노마드레지던스와 8개팀이 지원한 EBU민속음악축제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1팀씩 선정하였으며, 한·덴마크치서치지원 사업에는 1개 사업이 신청하였는데 그간의 활동과 준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을 결정하였다. 모두 뛰어난 역량과 성실함으로 사업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2개팀이 신청한 프랑스상상축제에는 페스티벌의 예술적 성격과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지 않았다. 진출하려는 플랫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합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해외 진출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ARKO-PAMS협력지원(일반공모)>

팸스초이스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초청 공연을 지원하는 아르코팸스협력지원 사업에는 1건이 지원 신청하여, 특별한 결격의 사유가 없고 훌륭한 공연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지원을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기대하며 꾸준히 성장하기를 바란다.